

교육 발전 기여 교직원·도민 발굴

전북자치도교육청, '제1회 전북교육발전대상' 추진... 내달 3일까지 접수

교육감 표창·전북교육 명예의 전당 헌액·홍보대사 위촉·200만원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과 도민에게 상을 주는 '제1회 전북교육발전대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처음 열리는 전북교육발전대상은 전북교육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교직원과 도민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교육적 표상으로 삼고 전북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선발 부문은 수업 혁신, 혁신 경영, 교육 헌신, 교육협력 등 4개로, 분야별로 1명이 선발돼 교육감 표창이 수여된다. 주요 자격요건은 △수업 연구 및 혁신에 객관적이고 현저한 공을 인정받은 자 △학교·기관 경영에 분명한 실적과 성과를 이룬 자 △교육봉사·기부 및 의정활동 등으로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교육투자자 교육활

동 지원 실적이 두드러진 자(기관) 등이다. 공공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법인 등의 추천 및 본인 지원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 기간은 12월 3일까지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방문 실사와 공개 검증 등을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자는 12월 13일 발표되고, 시상식은 12월 18일 이뤄진다. 특히 수상자들에게는 교육감 표창, 전북교육명예의 전당 헌액, 전북교육 홍보대사 위촉과 200만 원의 지원금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 1518번을 참고하거나, 정책기획과 전북발전교육대상 담당자(239-3123)에게 문의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추천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월까지 매주 일요일 일실 김용택시인문학관에서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전북 농촌유학 문학기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이제 나도 삼진강 시인'

전북교육청, 농촌유학 문학기행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월까지 매주 일요일 일실 김용택시인문학관에서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전북 농촌유학 문학기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삼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은 농촌유학을 통해 학생들에게 문학적 영감을 심어주고자 기획됐다. 앞서 일실 삼계초등학교와 대리초등학교 농촌유학이 참여했으며, 이달 17일과 24일에는 장수 산서초등학교와 일실 청운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김용택 시인의 문학적 배경을 직접 탐방하며 자신감을 키우고, 서로의 작품을 공유한다. 특히 김용택 시인이 직접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이 창작한 시를 발전시키고 문학적 성취감을 느끼는 기회의 장을 갖는다. 현재 전북에서는 10개 시·군 23개 학교에서 농촌유학을 운영하고 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이번 문학기행은 학생들이 시 창작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촌에서의 삶과 자연을 문화와 접목시키는 새로운 교육 모델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기행은 김용택 시인의 문학적 배경을 직접 탐방하며 자신감을 키우고, 서로의 작품을 공유한다. 특히 김용택 시인이 직접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이 창작한 시를 발전시키고 문학적 성취감을 느끼는 기회의 장을 갖는다. 현재 전북에서는 10개 시·군 23개 학교에서 농촌유학을 운영하고 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이번 문학기행은 학생들이 시 창작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촌에서의 삶과 자연을 문화와 접목시키는 새로운 교육 모델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는 지난 14~15일 이틀간 라한호텔 전주에서 교직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창훈 학교법인 우석학원 이사장, 박노준 우석대 총장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우석대학교 제공)

'대학을 새롭게... 지역을 이롭게... 지속 가능 대학 조성'

우석대, 교직원 워크숍... RISE 세부 내용 공유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지난 14~15일 이틀간 라한호텔 전주에서 교직원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서창훈 학교법인 이사장과 박노준 총장, 이홍기 산학협력부총장, 최상명 진전캠퍼스 부총장, 정희석 진전캠퍼스 RISE 추진단장을 비롯해 전체 교직원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RISE 세부 내용 공유와 함께 외부강사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RISE 추진 경과보고에서 정희석 진전캠퍼스 RISE 추진단장은 "WIN-RISE(Woosuk+INnovation)를 통해 대학을 새롭게 바꾸고, 지역을 이롭게 해 지속 가능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특히 외부강사 특강에서 유경진 돌고래의 꿈 대표는 "지자체-대학 RISE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를, 이길재 총복대 교수는 "RISE 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효과적 대학 성과관리 전략"을, 한상준 한국리더레이션센터 대표는 "지자체-대학 RISE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강화"를, 장세길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전략을 통한 RISE 혁신 발전 방안 마련"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서창훈 이사장은 "지역과 대학이 현재 처한 공동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

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전체 교직원 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12대 대학지연 과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차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RISE 체계 구축에 총심하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노준 총장은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등 대학이 보유한 역량과 인프라를 연계해 지역 발전을 이끌 혁신모델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올 기록관리 '최우수 기관'

전북교육청, 11개 저장지표 만점 기록... 99.93점 획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년 기록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록관리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포함해 교육지원청(176개), 정부산하 공공기관(38개) 등 모두 2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100점 만점 중 99.93점을 획득,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기록물 이관 등 11개 저장지표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중점 추진 사례로 제출한 정성지표에서도 장기적인 기록관리 안정성 효과가 크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장은성 기자

이는 전체 평가대상 평균 84.1점, 17개 시·도교육청 평균 93점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전북교육청의 기록관리 수준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도내 8개 교육지원청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가' 등급을 받은 교육지원청은 김제, 남원, 순창, 부안, 무주, 정읍, 장수, 고창교육지원청 등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소속 교육지원청 기록연구사들의 기록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헌신과 노력으로 일군 성과"라며 "전북교육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선진 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등 과학과 국정도서 편찬

전주대 '생활기능 중심 맞춤형 도서 개발 중점'

전주대학교 과학교육과 국정도서편찬위원회는 '2022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국정도서(과학과)' 편찬 사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3년 4월, 교육부로부터 9억 8천만원을 지원받아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과학과(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전자저작물 등 6책 2종의 편찬 사업을 시작했다. 국정교과서 편찬은 과학교육과 윤마병 교수(사범대학장)가 책임연구자로 전공의 관련학과 교수, 장학사, 교사 등 총 45명이 참여했다. 이번 편찬되는 국정도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는 내년 3월부터 과학 교과 수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과학교육과 윤마병 교수(사범대학



전주대학교 과학교육과 국정도서편찬위원회는 '2022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국정도서(과학과)' 편찬 사업을 수행했다.

장)는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도 생활 연령에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교과서가 그 시작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중·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는 약 2,000개의 사진과 1,500개의 삽화가 사용되고, 4번의 출석 심의와 12번의 집필진 개정 작업으로 완성됐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특

수교육 대상 학생의 삶과 연계되는 생활기능 중심으로 학습경험의 질 개선과 학생 맞춤형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집필진 과학 교과서와 전자도서는 '전주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명의로 발간돼 전국에 배포되기 때문에 전주대와 과학교육과의 자긍심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유세영 코디네이터 중기 기술 혁신대전 중기부장관상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14일 '2024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K-INNO SHOW 2024)'에서 유세영 코디네이터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중소기업, 인공지능(AI) 연결·확장·성장 등 4대 주제를 주제로 14~15일 울산컨벤션센터(UECC)에서 열린 이 행사는 AI 기반 제조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국 중소기업의 혁신 성과를 공유해 지역 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마련됐다. 기술혁신, 경영혁신, 기술협력 등 7개 분야의 유공자에 대한 '2024년 중소기업 혁신 유공 시상식'에서 유세영 코디네이터가 산학협력 유공자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 코디네이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이라는 큰 상을 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기업-대학과 함께 상생협력하는 산·학·연·관 생태계를 고도화시키고 기업의 가치 창출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빅데이터로 기후변화 언론보도 분석

전북대 이민희 박사,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전북대학교 이민희 박사(데이터커뮤니케이션 연구소)가 최근 국립공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2024년 가을철 학술대회에서 연구회 부문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23개 연구회에서 약 150편의 최신 연구 성과가 발표됐다. 이민희 박사는 유경한 지도

교수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연구는 빅데이터 방법론과 질적 내용 분석을 활용해 장기적인 기후변화 관련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정보원의 변화와 기후변화 논의의 주제의 변화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미디어화 된 환경 담론을 분석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특히 초음파 기반으로 작은 축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이 기술은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LG전자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LINC 3.0, 대학생 마이비전 연합 창업캠프 참가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대학생 마이비전(My Vision) 연합 창업캠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4~15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캠프는 전북권 창업교육 공동 운영 플랫폼을 통해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과 공유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현장 중심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및 창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캠프에는 진안군 일자리센터와 전주비전대학을 비롯해 군산대, 군장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전주기전대 등 전북권 8개 대학이 참

여했다. 행사 1일차에는 진안 '두드림 딸기' 스마트팜 시설을 견학한 후, 성공한 청년 창업가의 로컬 스타트업 성공사례 특강이 진행됐다. 이후 참여 학생들은 팀프로젝트를 통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2일차에는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 피칭 스킬 및 실습 강의를 듣고, 팀별 발표 평가가 이뤄졌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오호권 석사과정생, AJSAE 국제 학술대회 '우수'

전북대학교 오호권 석사과정생(로스알라모스-전북대한국공학 연구소·지도교수 강래형)이 최근 열린 AJSAE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오 대학원생은 초음파 센서를 통해 볼트의 풀림 여부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을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연구는 개폐가 가능한 조인트 부품에서 반복적인 사용 후에도 볼트의 체결력이 유지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특히 초음파 기반으로 작은 축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이 기술은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LG전자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장은성 기자

